

CMRC 기금운용팀 12월 포트폴리오 운용보고서

팀원: 이지호, 이동석, 최락영, 황수성

1. 성과분석

CMRC 기금 포트폴리오 성과는 전월(12.1~12.31) -3.47%, 전체 운용기간(9.12~12.31) -10.63% 입니다. BM1 MSCI ACWI(12월 -5.48%, 운용기간 -4.43%) 대비 12월 +1.99%, 운용기간 -6.2%, BM2 S&P500(12월 -6.59%, 운용기간 -5.82%) 대비 12월 +3.12%, 운용기간 -4.81%의 성적을 냈습니다. 누적수익률은 BM을 하회했지만, 월수익률은 2개 BM을 모두 상회했습니다. 월수익률의 BM 상회 원인은 초기 투자목적에 근거한 HANARO Fn K-푸드 ETF의 익절과 저변동성 종목의 성과에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주가지수가 대거 하락했고, 채권의 수익률도 좋지 않았던 12월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평가인상을 통한 가격 전가에 따른 호실적을 기대하여 투자했던 HANARO Fn K-푸드 ETF가 오리온의 호실적을 필두로 양전했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실적에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던 투자였습니다. 또한, 주식과 채권의 동반하락 국면에서 JEPI(커버드콜 전략)와 JPST(초단기채권)는 각각 S&P500, TLT(장기채 ETF), IEF(중기채 ETF) 대비 좋은 성과를 보여줬고, 분배금까지 지급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중국의 리오프닝 상승기류에 CMRC기금의 중국 종목인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가 제대로 올라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플랫폼과 소비재 위주의 상승은 눈에 띄었지만, 내구재는 크게 상승하지 못했고, 전기차 섹터는 세제혜택 종료 등으로 인해서 더욱 상승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소 급진적인 리오프닝에 따른 감염 확산세로 인한 하방 리스크에 대비해서 중국에 대한 추가투자는 진행하지 않았고, 이는 손실이 확대되고 있었던 당시 상황에서 수익률 보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후술할 목표가에 도달하면 손을 댈 예정입니다. 남은 1월의 운용기간에도 하방 리스크가 제한적인 자산 위주로 투자를 실행할 것임은 확실합니다. CMRC 기금운용팀은 7:3의 위험자산/안전자산 비중을 유지하되, 위험자산(주식) 포트폴리오를 1월 중순에 포진한 실적 발표주 위주로 구축하는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딩을 실시하여 월 수익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손실이 발생한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TIGER 미국테크TOP10INDXX,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KOSEF 국고채10년, 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JEPI), HANARO fn K-food, TIGER 일본엔선물

상품명	수익률(매매시점~12월 31일)	성과분석
TIGER 미국테크 TOP10 INDXX	-27.12% (2022-12-21, 2022-12-29 각각 25주 매 도시점일 기준)	2022년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로의 전환을 기대하며 매수했던 미국 빅테크 종목은 상승 반전하지 못하고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BM인 나스닥은 2022년 한 해 33.1% 하락했습니다. 연말 랠리를 기대했지만 결국 하락폭을 줄이지 못하고 2008년 이후 최악의 한 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빅테크 종목은 금리 인상에 따른 할인율 부담과 수요 둔화, 광고시장 악화로 폭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게다가 연말 엔화 강세, 유로존 긴축 전환에 따른 유로화 강세 영향으로 강달러 기조가 꺾였습니다. 이에, 환차손이 더해져 매도 시점 기준 27%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미연준은 여전히 높은 물가상승률에 2023년에도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며 긴축 기조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몇 달 새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가 가파라지면서 시장은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을 기대했지만, 끝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기금운용팀의 운용 기간 동안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기 어렵다 판단하여 매도 결정하였습니다.
TIGER 차이나전기차 SOLACTIVE	-18.98%	중국 전기차 기업 '니오'는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제약, 생산 둔화로 인해 4분기 차량 인도량을 하향 조정하자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는 니오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전기차 업종 전반에 걸친 문제라는 점에서 중국 전기차 업종의 하락이 뚜렷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전기차 보조금 종료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공급 관련 악재가 해소되면서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 목표 주가인 12,500원 달성 시 매도할 계획입니다.
KOSEF 국고채 10년	-0.58%	FOMC 이후 미 연준 당국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간 가운데, 미 국채 금리 선물이 상승세를 보이며 매도세가 강해져 국내 채권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금리를 올린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에 금리 인상 종료를 외칠 확률이 가장 높고, 내년 WGBI 인덱스에 편입이 예정되어 있어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 (JEPI)	-11.26% (배당/현손익포함) -3.56% (현손익미포함)	주식 현물 매수와 콜옵션 매도를 병행하는 커버드콜 전략 ETF로 주가 상승과 배당수익을 모두 노립니다. 시장수익률 대비 수익률이 상승장에서 저조하지만, 보다 안정적인 구성종목과 월배당을 통해 횡보/하락장에서의 수익률 방어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해당 ETF는 12월 한 달 간 -2.90% 하락했지만 -3.98% 하락한 BM 대비 S&P500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USDKRW환율이 한 달 간 -3.25% 하락하며 결과적으로는 하락폭이 급격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월배당의 매력은 여전하며 침체 우려와 인플레가 상존하는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지속하여 투자하고자 합니다..
TIGER 일본엔선물 ETF	-0.42%	미-일 간 금리차이로 야기된 극심한 엔 절하 10월 한달 간 -2.36%라는 하락폭을 기록했던 일본 엔선물은 12월 20일 일본의 깜짝 YCC 수정 선언으로 크게 반등하였습니다. 12/20일, 지금까지 글로벌 금리 인상 국면 속에서 혼자 곳곳하게 저금리 정책을 고수해왔던 일본이 YCC 변경을 선언하며 시장은 이제 일본이 드디어 긴축 기조로 pivot하는 것이 아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금팀은 일본이 2023년에 금리 인상으로 노선을 변경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TIGER 일본엔선물을 추가 매수 또한 검토 중입니다. 이는 1) 미-일 간 극심한 금리 차이로 인한 일본의 자금 유출과 극심한 엔저 2) 일본의 수입물가 상승 3) 아베노믹스의 행동 대장 이었던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의 임기가 오는 23년 4월에 끝난다는 점 4) 現 일본 기시다 정권은 아베노믹스에 회의적이며 현재의 물가 상승의 기회를 활용해 일본의 장기 불황을 끝내고자 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일본은 결국 올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저희 기금팀은 TIGER 일본 엔선물의 반등에 유의미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한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JPMorgan Ultra-Short Income ETF(JPST), HANARO fn K-푸드

상품명	수익률(매매시점)	성과분석
-----	-----------	------

	~12월 31일)	
JPMorgan Ultra-Short Income ETF (JPST)	+0.83%(배당/환손익 포함) -4.06%(환손익 미포함)	11.3 FOMC에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70bp 인상)을 연이어 감행한 동시에 terminal rate를 인상했던 반면, 12월 15일엔 연준이 빅스텝(50bp 인상)을 밟으며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2월에도 파월은 계속해서 긴축을 감행하겠다는 매파적 의지를 내비치었고 적어도 23년 상반기까지는 금리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jpst의 투자 전략은 아직 유효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달러의 피크아웃입니다. 10월 한 때, 1450원까지 치솟았던 USD/KRW는 현재 1300원대가 깨지고 1270원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는 포트폴리오 내 국내 주식에게는 호재이지만, 달러강세를 노린 JPST의 수익률에는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1) 연준의 속도조절은 금리 하락과 같은 효과를 야기하여 채권가격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 2) 0.8%의 월 배당 수혜를 꾸준히 챙길 수 있다는 점 3) 금리인상과 긴축 기조는 23년 초까지는 지속될 것이라 전망하기에 본 JPST를 계속 보유하며 환율 변동의 위험을 헛지할 수단을 강구해보기로 하였습니다.
HANARO fn K-푸드	+5.51% (2022-12-26 30주 매도시점일 기준)	HANARO fn K- 푸드는 CJ제일제당, 오리온, 하이트진로, 농심, 동서 식품 등 한국의 식품 수출 대기업의 주가를 추종합니다. 약 20%의 비중을 차지하는 오리온의 경우 11.14일 발표된 3분기 매출에서 호실적을 달성하며 지속적인 상승세로 12월 마감했습니다. 제조원가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 유통망 채널 출고 증가와 판가 인상효과 반영되며 OPM 16.8%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환경에 대비한 수익성 관리 활동이 주요 상승 원인이었습니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음식료 섹터는 필수소비재 역할을 하며 꾸준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코로나 방역 정책 선회에 따른 리오프닝 기대감이 음식료 섹터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오리온 뿐만 아니라 삼양식품, 롯데칠성 등의 기업들도 매도시점까지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해주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서 매도 후 다른 종목으로의 변경을 위해 리오프닝 기대감에 상승한 시점에서 매도 결정했습니다.

2. 포트폴리오 변경사유

12월 상황을 정리한 뒤 각 자산군별 변경 사유를 정리하겠습니다.

- 12월 사항

12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2년 한 해의 마지막 달이었습니다. 2022년은 참 주식시장의 최악의 해였습니다. 인류 역사 상 다시는 일어나선 안됐을 전쟁이 발발했고 이에 따라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으며 이를 막기 위한 고강도 긴축과 달러 초강세화, 중국의 고강도 코로나 봉쇄까지...정말 바람 잘 날이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의 마지막 12월은 어땠을까요? 크게 3가지 꼽아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올 한 해 "킹달러"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초강세였던 달러의 피크아웃입니다. 한 때 1450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1270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이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둘째는, 중국의 리오프닝입니다. 드디어 중국의 두꺼웠던 '바이러스의 장막'이 막을 내렸습니다. 3월 27일부터 거의 1년간 지속된 중국의 고강도 코로나 봉쇄가 이제서야 풀린 것인데요 이 또한 2023년 중국 증시의 부양을 기대해볼 수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셋째, 일본 BOJ의 깜짝 YCC 수정 선언입니다. 22년 글로벌 고강도 긴축 추세 속에서 지금까지 혼자 저금리 정책을 펼쳐왔던 일본이 드디어 긴축의 시그널을 보낸 것입니다. 이를 두고 시장은 23년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2년을 한 해를 풍미했던 강달러, 중국 코로나 봉쇄, 일본의 나홀로 저금리 정책 이 3가지가 연말 12월에서야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 2023년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예측할 수 있기에 이를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킹달러의 종말

지난 9월-10월은 정말이지 '혼란'과 '킹달러'의 시대였습니다. 9월과 22일 FOMC는 확고한 매파적 스탠스를 보이며 환율은 급등하였고 여기에 더해 러시아의 징집령 발동과 핵 공격 시사, 영국의 파운드화 급락, 시진핑 3연임과 미국 중간선거까지 정말 바람 잘 날이 없었던 혼란의 사건들 하에 달러의 가치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았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1월 6일 기점으로 달러가치는 7% 이상 대폭 하락하였습니다. 실제로 달러인덱스는 12월 5일 기준 104.25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월 대비 11월 1일 113까지 치솟았던 것에 비하여 상당한 하락폭을 보여준 셈입니다. 달러가 하락한 데에는 1) 12월 미 연준의 속도 조절 2) 영국 등 유럽 시장의 안정화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시장의 리스크 감소 4) 시진핑 당대회, 미국 중간선거 등 굵직한 정치적 변수들이 지나갔으며 5) 중국의 코로나 봉쇄 해제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과 금융 불안, 미-중 갈등 및 러-우 전쟁 등 달러의 상방 요인은 아직까지 남아있기에 1200 중반대에서 보합을 형성할 것이란 시각이 있습니다. 아직 물가가 너무 높은 상황이기에 완전한 연준의 피벗을 기대하는 것은 이르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합니다. 결국 내년 상반기에는 달러의 점진적인 약세화 속에서 다시 달러의 상방요인들에 눈여겨 봐야하겠습니다.

2. 중국의 리오프닝

12월 26일 중국 방역당국이 전면적인 리오프닝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1월 8일부로 1)

해외 입국자 격리 조치 해제 2) 감염자 격리 조치 면제 등 마지막 방역 조치까지 해제하였습니다. 이는 1) 그동안 약 1년 가까이 고강도 코로나 봉쇄 조치에 지친 중국 국민들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 확산 2) 공산당 당대회 이후 시진핑의 안정적인 3연임 확정과 내부 인사 정리의 마무리 3) 중국 경제의 회복에 대한 필요성 등 때문에 봉쇄를 해제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급격한 방역완화에 확진자는 폭증하여 전체 인구의 18%까지 감염되고 있는데, 중국 방역 당국은 춘절을 전후로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 폭증의 시기를 먼저 겪었던 여타 다른 선진국들처럼 중국 또한 3월부터는 경제 활동이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즉 2023년은 '중국 리오프닝 관련 주가'의 부활을 기대해볼 수 있는 해가 되겠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은 23년 경제침체로 선진국 수요가 하락하는 가운데 중국 수요가 개선되는 것이라 글로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으나, 그동안 눌러왔던 반발 소비까지 가세하면 예상보다 빠른 관련 업종들의 회복을 기대해볼만 합니다.

3. 일본의 YCC(10년물 금리 변동폭 통제 정책) 완화 선언

12월 20일 글로벌 금리 인상 국면 속에서 그동안 혼자 깨끗하게 저금리 정책을 고수해왔던 일본이 드디어 긴축의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바로 YCC, 즉 일본 장기채 1-년물 금리 상.하한을 기존 0.25%에서 0.5%까지 완화한 것 입니다. 이는 1) 미-일 간 극심한 금리 차이로 인한 일본의 자금 유출과 극심한 엔저 2) 일본의 수입물가 급등 3) 아베노믹스의 행동 대장이었던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의 임기가 오는 23년 4월에 끝난다는 점 4) 現 일본 기시다 정권은 아베노믹스에 회의적이며 현재의 물가 상승의 기회를 활용해 일본의 장기불황을 끝내고자 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일본이 결국 23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엔 캐리트레이드 세력의 대거 청산 가능성에 주목하며 엔화의 급격한 강세를 주의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 국채의 최대 채권국이며 그동안 일본의 '나홀로 저금리 정책'으로 엔 캐리트레이드 세력이 상당 수 포진하고 있는 바, 갑작스러운 일본의 긴축은 엔화 강세와 미국 국채 수익률 급등으로 여러 증시 쇼크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 아직까지 일본의 금리는 주요 통화국 금리 수준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다는 점 2) 일본은 GDP 대비 260%가 넘는 부채비율 때문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단기적으로 엔 캐리트레이드 세력의 청산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에 아직 시장은 차분하게 일본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1월 18일 BOJ 회의를 기점으로 엔 시세의 추세에 주목해보아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결론적으로 2023년 일본이 긴축 노선에 돌입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23년은 일본 엔 투자 혹은 일본 금융주 투자의 한 해가 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 매수 및 매도 종목

12.01 ~ 12.30 기금운용팀의 매수 종목은 VanEck Vectors Gold Mines ETF, 매도 종목은 1) TIGER 미국테크 TOP10 INDXX, 2) HANARO Fn K-푸드입니다.

매수 종목명	매수 시기	매수 수량/단가
VanEck Vectors Gold Mines ETF	2022-12월 내 분할매수	6주 / \$29.1
매수 이유		
<p>미국 실질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 국면에서 하락했던 금 매수 심리 회복이 기대됩니다. 금과 달러는 역사적으로 역상관관계를 형성합니다. 최근 달러 하락 추세를 고려했을 때 매력적인 투자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달러 하락 추세는 연준의 긴축 속도, 경기 침체 우려와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2022년 연말 하락폭이 컸던 이유도 경기 침체 우려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 시, 금 가격 상승에 후행적으로 금 채굴 기업 주가 역시 상승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상위 종목들로는 세계 최대 금광회사인 뉴몬트 마이닝 코퍼레이션(12%), 금과 구리 생산 기업인 배릭 골드(9.3%), 캐나다 금광업체인 프랑코-네바다(9%) 등을 포함합니다. 불황 및 위기 국면에서 차별화된 성과를 기대합니다.</p>		

매수 종목명	매수 시기	매수 수량/단가	매도 시기	매도 수량/단가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	1. 2022-09-13	1. 24주 / 11,570원	1. 2022-12-21	1. 25주 / 8,500원
	2. 2022-09-14	2. 26주 / 11,030원	2. 2022-12-29	2. 25주 / 7,955원
매도 이유				
<p>2022년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로의 전환을 기대하며 매수했던 미국 빅테크 종목은 상승 반전하지 못하고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BM인 나스닥은 2022년 한 해 33.1% 하락했습니다. 연말 랠리를 기대했지만 결국 하락폭을 줄이지 못하고 2008년 이후 최악의 한 해로 마무리했습니다. 빅테크 종목은 금리 인상에 따른 할인율 부담과 수요 둔화, 광고시장 악화로 폭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게다가 연말 엔화 강세, 유로존 긴축 전환에 따른 유로화 강세 영향으로 강달러 기조가 꺾였습니다. 이에, 환차손이 더해져 매도 시점 기준 27%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미연준은 여전히 높은 물가상승률에 2023년에도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며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몇 달 새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가 가파라지면서 시장은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을 기대했지만, 끝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기금운용팀의 운용 기간 동안 위험자</p>				

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기 어렵다 판단하여 매도 결정하였습니다.

매도 종목명	매입 시기	매입 수량/단가	매도 시기	매도 수량/단가
HANARO Fn K- 푸드	1. 2022-09-15	1. 30주 / 9,280원	2022-12-26	31주 / 9,790원
	2. 2022-09-19	2. 1주 / 9,255원		

매도 이유

약 20%의 비중을 차지하는 오리온의 경우 11.14일 발표된 3분기 매출에서 호실적을 달성하며 계속적인 상승세로 12월 마감했습니다. 제조원가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 유통망 채널 출고 증가와 판가 인상효과 반영되며 OPM 16.8%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환경에 대비한 수익성 관리 활동이 주요 상승 원인이었습니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음식료 섹터는 필수소비재 역할을 하며 꾸준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코로나 방역 정책 선회에 따른 리오프닝 기대감이 음식료 섹터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오리온 뿐만 아니라 삼양식품, 롯데칠성 등의 기업들도 매도시점까지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해주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서 매도 후 다른 종목으로의 변경을 위해 리오프닝 기대감에 상승한 시점에서 매도 결정했습니다.

3. 전망 및 전략

1월의 투자전략 슬로건은 '안전마진 확보' 입니다. 그동안 CMRC 기금운용팀의 포트폴리오는 글로벌 주식, 국내 주식, 채권, 엔화, 달러에 배분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침체 우려의 심화와 환율 급변동(엔화, 달러, 원화)이 예상되는 만큼, 보다 안전한 투자처를 찾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험자산(주식), 안전자산(채권)이 모두 급격히 하락하며 2008년 이후 최악의 증시라고 평가받는 2022년의 환경에서 겪은 손실을 메꾸기 위해 다소 공격적인 전략 또한 고려해볼 수 있었으나, 결국 글로벌 자산배분의 본질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귀금속 채굴 기업의 ETF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했으며, 추가적으로 엔화 노출 비중의 확대와 Q4 실적 기대 기업 선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저평가된 자산의 평균 회귀 법칙을 토대로 안전한 영역을 점차 확장시키는 투자를 하겠습니다. 12월 신규 편입 예정 종목에 대해서는 검토요청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 CPI 발표와 중국 점진적 리오프닝 돌입 이후 줄곧 이어지는 위험자산 선호심리 회복 추세에서 매크로와의 높은 상관관계를 지닌 위험자산(TIGER 미국테크TOP10)의 포지션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의 포지션을 반등 추세에서 정리하고, 중국 리오프닝 국면에서 더 직접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소비/관광 업종의 종목에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신규 편입 종목(GDX)은 검토요청서와 위 매수종목 파트에서 설명드렸으며, 1월의 추가 편입 종목에 대해서는 전략 발표와 검토요청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의 자산배분 기조 하에서 Core/Satellite를 적절히 설정하고, 전략적/전술적 자산배분(SAA/TAA)를 주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CMRC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학회원 여러분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올바른 투자를 지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